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권혁용,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오전 9시  
오전 11시

1월의기도

찬 양\*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파송의말씀

축 도\*

##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찬 67)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십자가의 사랑

은혜 아니면

사명

사도행전 26:19-32

찬양의 삶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찬 490)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월의 공동기도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큐티책 연간 정기구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 : \$70 / 6개월 : \$35 (문의 - 박순정)
4. **현장새벽기도회**는 토요일에만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5.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6. 당분간 예배당 사용에 조심을 기하라는 미국 교회의 요청이 있어서 주일예배 이후에 일체의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7.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 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처음을 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용하는 말 중에 ‘초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향해 걸어가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며 그것이 무디어지고, 잘못되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올바른 회복하라고 말할 때 초심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격언 중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Well begun, is half done” - 시작을 잘 하면 이미 절반을 완료한 것과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시작, 처음은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1년 중에 1월은 바로 그런 달입니다. 모든 시간이 소중하지만, 그러기에 1월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벌써 절반이 지난 16일입니다.

2022년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 연말부터 몰아친 코비드 오미크론의 폭풍은 금년 초 또 한번 우리의 일상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어수선하게 맞이하였습니다. 한울림가족들 중에도 코비드에 감염되거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연초에 격리 생활을 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회복되고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연초의 혼란함은 새해의 신선함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1월을 그냥 보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두 가지 신청서를 배부할 것입니다. 사역신청서와 기도요청서입니다. 사역신청서는 금년 교회내외 사역에 참여하겠다는 자원하는 신청서입니다. 기도요청서는 2022년 한 해동안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담임목사와 더불어 중보기도팀이 정한 시간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일년을 살다보면 흐름의 기복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힘차게 살아갈 때도 있고 힘이 빠져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연초에 세운 목표와 다짐한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세운 목표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1월을 1월답게, 돌아볼 초심을 세워가는 한 주간에 되시기 바랍니다. 정채봉님의 첫마음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 성사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